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 (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 올림픽 인프라 구축 위한 조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도 월드컵 이후 2년의 간격을 두고 곧바로 이어지게 된다. 양 대회 유치를 위해 43개월간의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브라질 정부가 숨 고르기를 지나치게 길게 한 때문인지 대회 개최를 위한 주경기장, 국제공항의 건설과 같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회 유치를 위해 2007년부터 계획했던 상파울루~리우데자네이루 연결 고속철도 사업이 복잡한 입찰 과정 등으로 인해 몇 년째 검토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올림픽 이전인 2016년 완공을 포기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인프라 건설의 진행이 더딘 것은 브라질의 '국가입찰법'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입찰법은 입찰 과정이 복잡해 입찰 기간이 장기화되고 관료제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은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입찰법의 문제점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장과 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진한 준비 상황에 대해 조바심을 느낀 브라질 의회는 2011년 6월 입찰 절차의 표준화 · 신속화를 목적으로 국가 입찰에 관한 새로운 법인 '특별국가입찰법'을 통과시켰다...(중략)

정철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중남미팀장

- [제859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